

Switch 데일리 리포트

2026년 04월 30일 (목)

유가·환율 부담 속 외국인 매도, AI 인프라 투자는 확대

오늘의 한눈 요약

국내증시는 FOMC 이후 에너지 물가 부담과 환율 부담이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6,600선을 밑돌았고, 코스닥은 2%대 하락했습니다.

- KOSPI 6,598.87 / -92.03 / -1.38%
- KOSDAQ 1,192.35 / -27.91 / -2.29%
-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4,559억 원 순매도
- WTI 108달러대, 원·달러 1,483.3원으로 매크로 부담 확대
- 빅테크 AI CAPEX 확대와 전력 인프라 선별 강세

오늘의 키워드

FOMC 동결 · 에너지 물가 · 외국인 매도 · AI CAPEX · 삼성전자 실적 · 전력 인프라

국내 지수·수급

구분	종가	등락	등락률
KOSPI	6,598.87	-92.03	-1.38%
KOSDAQ	1,192.35	-27.91	-2.29%
KOSPI200	992.15	-14.44	-1.43%

수급 메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지수 하락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했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컸고 대형주 중심 차익실현 흐름이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 코스피: 개인 +11,872억 / 외국인 -14,559억 / 기관 +2,838억
- 코스닥: 개인 +5,532억 / 외국인 -2,112억 / 기관 -3,045억
- 프로그램 매매: 코스피 -11,328억 / 코스닥 -2,978억



출처: 사용자 제공 장마감 캡처

오늘의 소식 1

FOMC 금리 동결과 에너지 물가 부담

미국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확장되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낮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3.50~3.75% 동결
경제 활동	견조한 확장 흐름 유지
고용	증가세는 낮고 실업률은 큰 변화 없음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부 반영
불확실성	중동 상황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국내증시 연결

이번 FOMC는 금리 동결 자체보다 에너지 가격과 중동 불확실성이 성명서에 반영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환율·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증시에서는 유가 급등, 환율 부담, 외국인 순매도가 함께 나타나며 장 후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의 소식 2

빅테크 실적과 AI CAPEX 확대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는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투자가 다시 핵심 변수로 확인됐습니다. Google, Microsoft, Amazon, Meta 모두 데이터센터·서버·네트워크 투자 기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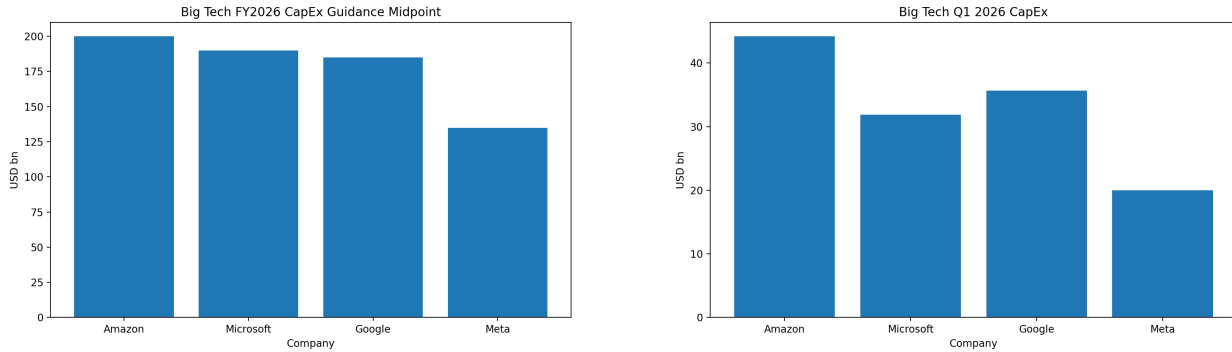
기업	실적·CAPEX 핵심
Google	Google Cloud 매출 200.3억 달러, 전년 대비 +63%. 2026년 CAPEX 가이드스 1,800억~1,900억 달러.
Microsoft	매출 828.9억 달러, 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39%. 2026년 CAPEX 약 1,900억 달러.
Amazon	매출 1,815.2억 달러, AWS 매출 375.9억 달러, AWS +28%. 1분기 CAPEX 442억 달러.
Meta	매출 563.1억 달러. 2026년 CAPEX 가이드스를 1,250억~1,450억 달러로 상향.

시장 연결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증시에서 메모리, 서버용 SSD, 전력설비, 전선, 데이터센터 인프라 테마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포트에서는 특정 종목을 고르는 관점이 아니라, AI 투자 규모가 산업 흐름에 미치는 영향만 정리합니다.

빅테크 CAPEX 그래프

아래 그래프는 사용자 제공 JP모건 정리와 실적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1분기 CAPEX와 2026년 연간 CAPEX 가이드스 중간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업	1Q26 CAPEX	2026 연간 가이드스
Amazon	\$44.2bn	\$200bn
Microsoft	\$31.9bn	\$190bn
Google	\$35.67bn	\$180~190bn
Meta	\$20.0bn	\$125~145bn

단위: 달러. 일부 가이드스는 범위값이며 표에는 범위 또는 중간값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3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133.87조 원, 영업이익 57.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매출 81.7조 원, 영업이익 53.7조 원으로 전사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분	수치
매출	133.87조 원
영업이익	57.23조 원
순이익	47.10조 원
반도체 매출	81.7조 원
반도체 영업이익	53.7조 원
모바일·네트워크 영업이익	2.8조 원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4,000억 원
가전 영업이익	2,000억 원

컨퍼런스콜에서 확인된 내용

- 일부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DRAM과 NAND 가격은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HBM4는 하반기부터 공급 물량이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 HBM4E는 2분기 중 첫 샘플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PCIe Gen6 SSD는 개발을 마치고 고객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콜 Q&A: 핵심 요약

아래 내용은 제공된 요약을 원문 흐름에 맞춰 보완하고, 투자 판단처럼 보이는 표현은 줄여 자연스럽게 다듬은 버전입니다.

1. LTA 추진	일부 고객사와는 이미 장기공급계약을 마쳤습니다. 기존 신뢰 기반 계약보다 구속력이 높고,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 운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상여금 총당금	노사가 아직 협의 중이라 1분기에는 총당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2분기 반영 여부와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3. 메모리 실적	AI 관련 수요가 HBM, 서버 D램, 서버 SSD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DRAM 비트그로스는 가이던스를 달성했고 NAND는 가이던스를 웃돌았습니다.
4. 총파업 대응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회사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지정학 리스크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며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6. 2분기 메모리 전망	AI향 수요가 메모리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고, 2027년 수요 대비 공급 격차는 2026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HBM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BM4는 하반기 공급 확대, HBM4E는 2분기 첫 샘플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 파운드리	AI:HPC 고객사와 2나노 공정을 논의 중이며, HBM4 베이스다이 수요와 선단 공정 수요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9. DRAM 믹스	단기적으로 컨벤셔널 D램 수익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AI 인프라 수요를 위해 HBM과 컨벤셔널 D램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 MX	스마트폰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소폭 성장하나 수량 기준 감소가 예상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도 언급했습니다.
11. NAND	AI 확산으로 고성능·고용량 스토리지 수요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PCIe Gen6 SSD와 초고용량 서버형 SSD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12. 테일러 팩	테일러 팩 1은 올해 가동, 2027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테일러 팩 2는 고객 수주 논의와 함께 초기 검토 중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 실적발표

오늘 나온 국내 기업 실적은 한 줄 목록으로 압축했습니다. 주가나 투자 의견이 아니라 실적 발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기업	실적 요약
삼성전자(005930)	매출 133.87조 원, 영업이익 57.23조 원, 반도체 영업이익 53.7조 원
삼성전기(009150)	매출 3조2091억 원, 영업이익 2806억 원; AI 서버·전장용 MLCC와 FCBGA 공급 확대
NAVER(035420)	매출 3조2411억 원, 영업이익 5418억 원; 커머스·플랫폼 성장
LG에너지솔루션(373220)	매출 6조5550억 원, 영업손실 2078억 원; ESS 확대와 북미 EV 수요 둔화 영향
LG화학(051910)	영업손실 497억 원; 자회사 부진 영향
POSCO홀딩스(005490)	매출 17조8760억 원, 영업이익 7070억 원; 리튬 적자 축소
포스코퓨처엠(003670)	매출 7575억 원, 영업이익 177억 원; 배터리소재 손실 축소
엘앤에프(066970)	매출 7396억 원, 영업이익 1173억 원; 흑자 전환
크라프트톤(259960)	매출 1조3714억 원, 영업이익 5616억 원;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
삼성중공업(010140)	매출 2조9023억 원, 영업이익 2731억 원; LNG선·FLNG 프로젝트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매출 5.7조 원, 영업이익 6389억 원; 방산 수출 흐름 확인
LG생활건강(051900)	매출 1조5766억 원, 영업이익 1078억 원;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F&F;(383220)	매출 5609억 원, 영업이익 1535억 원; 시장 예상 상회
GS건설(006360)	매출 2조4005억 원, 영업이익 735억 원; 매출 감소,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

원자재·환율·리스크 지표

지표	수치	메모
WTI유 선물	108.60 / +1.72 / +1.61%	에너지 물가 부담과 에너지 섹터 흐름에 영향
금 선물	4,631.41 / +69.91 / +1.53%	안전자산 선호와 지정학 리스크 반영
VIX	18.48 / -0.33 / -1.75%	공포 심리 급등은 제한적
달러 지수	98.83 / -0.13 / -0.13%	달러 강세 부담은 제한적
원·달러	1,483.3원	국내 외국인 수급 부담 요인

메모

유가와 금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에너지 섹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 강세는 지정학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를 함께 반영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결과가 이미 발표된 지표는 다음 리포트에서 수치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정
경제지표	21:15 유럽 기준금리 결정 / 21:30 미국 3월 PCE 가격지수 / 21:30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 / 21:30 미국 1분기 GDP / 22:45 시카고 PMI / 23:00 경기선행지수 / 23:30 EIA 천연가스 재고
실적 발표 - 장 시작 전	캐터필러, 로얄캐리비언, 일라이 릴리
실적 발표 - 장 종료 후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애플

다음 업데이트 후보

- 애플 실적 결과와 샌디스크·웨스턴디지털 실적은 발표 후 다음 리포트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PCE, GDP, 신규실업수당 결과가 나오면 일정 페이지 하단에 실제 수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와 안내

본 자료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공시, 수급, 시장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참고 자료

- 사용자 제공 국내 히트맵, 수급 캡처, 원자재·VIX·달러 지수 캡처
- Federal Reserve FOMC statement, 2026.04.29
- Samsung Electronics 1Q26 earnings / conference call 자료 및 보도
- Microsoft FY2026 Q3 earnings 자료
- Alphabet, Amazon, Meta 1Q26 earnings 및 CAPEX 관련 보도/자료
- 국내 주요 기업 1분기 실적 보도 및 공시 기반 자료
- SAVE 브리핑 자료 샘플: 2026년 4월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업로드본

작성 기준

- 숫자는 사용자 제공 자료와 공개 자료를 우선 사용했습니다.
- 목표가, 투자의견, 매수·매도 판단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본문에서 제외했습니다.
- 삼성전자 컨퍼런스콜 요약은 제공된 요약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되, 공식 표현과 맞지 않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다듬었습니다.

Switch 리서치